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유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Collge Station, TX
파견대학	Texas A&M University	파견기간	2018.08~2019.05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Texas A&M University는 텍사스 주의 College Station이라는 작고 한산한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게 학교 규모는 매우 큽니다. 학생 수나 학교 자체 크기도 매우 크고, 그만큼 재정 상태도 좋아 학생 복지 및 시설은 훌륭합니다. 특히 스포츠 관련 인프라가 잘 만들어져 있어 이쪽으로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분위기는 대체로 조용하고 여유롭습니다. 다만 위치가 대도시는 아니다보니 다소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의 고요함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종은 백인이 대다수입니다.
2018-2학기 수업	Business Finance 재무관리 강의입니다. 내용도 순천향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사회경제 및 세법 관련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저의 경우 이 부분이 재무 관련 내용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외에는 각종 재무 분석 및 비율 계산이 주를 이뤄, 본교에서 재무회계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쌓고 간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Composition & Rhetoric 기본적인 작문법 및 수사법을 가르치는 강의입니다. 순천향대의 체계와 비교하자면, 미국 학생들에겐 일반교양 같은 강의로, 가장 기초적인 Essay 작성 양식 및 논문 참고 방법, 참고 문헌 일람표 작성법 등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주요 내용은 Essay 작성 및 제출로써, 원어민이 아닌 저는 이 강의의 과제를 쫓아가는 것이 다른 강의에 비해 압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도 비원어민 학생을 배려해주시는 편이며 어려운만큼 배운 것도 많아 추천하고 싶습니다.

	Contemporary Moral Issue 철학 강의입니다. 심도 있는 책을 교수님이 배정해주시면, 이를 읽고 그에 대해 설명 - 자유 질답 및 토론이 이어지는 형태의 강의였는데, 강의 전 reading이 요구되는 책의 난이도에 따라 강의 난이도가 좌지우지됩니다. 저의 경우 몇몇 책이 몹시 난해하긴 했으나 나름 재밌게 들은 강의였습니다. 미리 Syllabus를 읽어보고, 관심가는 책이나 주제가 주를 이룬다면 수강할만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2019-1학기 수업	History of The US 1, 2 미국사 전반을 반으로 나눠 다루는 강의입니다. 한국의 국사 같은 강의로, 미국사에 관심이 있다면 수강해 볼만합니다. 학생 수가 매우 많아 교수님의 설명이 주를 이루고, 토론이나 질의응답은 많지 않아 다소 지루했습니다. Global Cinema 세계영화를 보고 그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주를 이루는 형태의 강의로, 위의 Contemporary Moral Issue와 비슷한 강의입니다. 유럽, 아시아는 물론이고 인도와 아프리카의 영화까지 배울 수 있어, 영화에 관심이 많고 학점에 여유가 있다면 추천할만한 강의입니다. Introduction to Logic 논리학 강의입니다. 주장의 논리를 마치 수학처럼 기호로 축약하는 것과 (ex: $A \rightarrow B$, $(A \rightarrow B) = C$), 논리에 공식을 대입시킨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일견 복잡해보일 수 있겠지만, 복잡한 공식이나 그 안의 원리를 이해했을 때의 배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강의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의 시작 일주일 전에 필참 OT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대부분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을 위한 꽤 규모 있는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멘토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대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터라 친구 만들기 좋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가 굉장히 변덕이 심한 편이라 어제는 해가 쨍쨍하다가도 오늘은 폭우가 내리거나 하루종일 구름이 끼있는 경우가 잦습니다. 대체로 날씨가 맑은 편이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겔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겨울이 없을 것 같지만 있고,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꽤 추운 편입니다. 패딩이나 파카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을용 자켓이나 스웨터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치안은 매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골인데다 학생들이 대다수이기도 하고, 교내 및 학교 외곽에서 경찰차가 순찰을 도는 모습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여기가 내가 가본 미국 도시 중 가장 안전하다' 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저는 2학기 모두 Hart Hall 기숙사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처럼 차량이 없는 뚜벅이에게는 캠퍼스 중심부 한가운데 위치한 Hart Hall의 입지가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도 매우 가까워 그나마 학교 외곽으로 이동하기도 쉬운 편이며, West Campus로도 자전거나 버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렌탈하고 기숙사내 공용주방을 주로 이용해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아침의 경우 대부분 직접 요리해먹었고, 점심과 저녁의 경우 교내에 프랜차이즈 식당이 여러가지 있어(Panda Express, Smash Burger 등) 이런 곳이나 학식이라고 할 수 있는 Sbis Hall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식당은 차만 있다면 선택지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의 특성상 식자재값이 저렴한 대신 외식 비용이 비싼 편이라, 식사를 직접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한다면 식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Hart Hall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건물 대부분은 도보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보다 거리가 있는 West Campus의 경우 교내버스 및 자전거를 이용하면 이동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College Station 및 College Station과 가까운 Bryan 시내에는 대중교통이 전무하기 때문에, 친구의 픽업, 혹은 학교 버스나 Uber, Lyft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텍사스의 주요 도시로는 Houston과 Austin이 있는데, 저는 주로 Ground Shuttle을 이용해 Houston시의 항공을 이용해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넓어 여행 간에는 주로 항공편을 이용했고, 비교적 가까운 도시를 이동할 때 Megabus 등 고속버스를 이용했습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50만원	왕복
Fees		
보험료	Texas A&M의 필수 가입 보험 존재, 2학기간 총 200~240만원 가량	-
숙소	2학기간 약 400만원	Hart Hall, 학기당 약 1800달러
식비	550만원	대략적인 수치
교통비		
책값	15만원	학기간 렌탈 및 도서관 대여로 최소화
기타1		
기타2		
합계	약 1400만원	여행 및 각종 추가비용 미포함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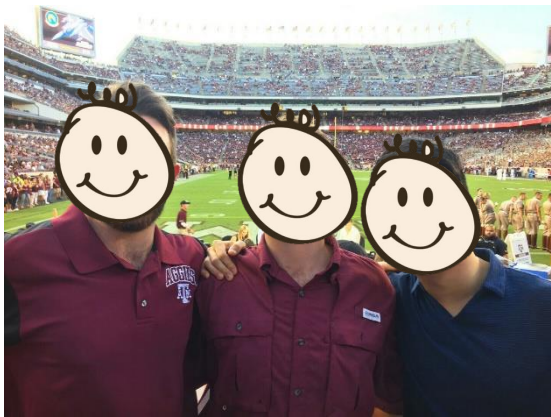
어휘든, 독해든, 리스닝이든, 영어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출국 전 영어 공부는 자신의 잠재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늘리는 건 회화 실력입니다. 어휘나 독해 능력 역시 늘릴 수는 있겠지만, 교환학생 준비하면서 TOEFL을 공부할 때만큼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들은 Composition & Rhetoric 강의처럼 예외는 존재하지만, 강의 수강이나 일상 대화에 있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만큼의 고급 어휘나 독해 능력이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경우는 항상 존재하고 그 때 드러나는 것이 출국 전에 쌓아둔 공부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자신이 공부한 것을 Essay에, 혹은 보다 심도 있는 대화와 같은 실전에서 사용할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공부량으로 대변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공부 없이 간다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에서든, 일상에서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뭐 까먹고 간거 있으면 친구한테 부탁해서 월마트 한번 가면 됩니다. 가끔 한식 그리우면 비싸긴 해도 한식 식당도 있고 마트에서 컵라면도 파니까 먹으면 되지만, 영어 공부 좀 더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나는건 어쩔 수 없었기에 그 점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학기별로 목표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어 늘리고, 적응하면 2학기 혹 가겠지 싶었는데 2학기가 제 생각보다 길더라구요. 영어 실력도 많이 늘리고,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본 첫 학기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겨울 여행을 하고 돌아온 2학기 때였습니다. 첫 학기만큼 강의 수강도 어렵지 않고, 적응도 다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자꾸 쳐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2학기가 끝나고 돌아보니 그래도 2학기간 영어를 쓰는 어색함을 벗어냈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후회가 남습니다. 또, 여행이 즐거운 경험을 가진 것 이상으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만이나 여행중에 뜻 밖의 상황과 맞닥뜨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어도 늘고 내적으로도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싶네요. 정리해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고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10개월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풋볼 개막전에서의 기념사진	Eagle Lock Backpacking 완료 후
	
여행중 만난 친구들과 찍은 사진	Gila Backpacking 도중
	
Rock Climbing Trip 도중	학교 풋볼 경기장 앞에서 마지막 기념사진